

초겨울에 어울리는 달콤한 맛 '오리엔탈 치킨'

710 An Other Man

쌀쌀하던 날씨가 갑자기 풀리더니 초봄과 같은 따스한 날씨가 되었다. 오랜만에 맞는 주말, 맛있는 닭고기 요리를 먹고자 수소문, 부암동을 찾았다.

몇 년전 성곽길이 일반에 개방되기 전 부암동은 매우 조용하고 산적한 곳이었지만 이



조 해 인 기자



벽면에는 알록달록 작은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주말 주중 할것 없이 찾는 이들이 많다.



식전음식으로 나온 핸드메이드 빵

제는 주말이면 심심찮게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을 마주한다. 이와 더불어 도로변은 물론 주택가 곳곳에도 카페가 아닌 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조용한 부암동 주택가 사이에 젊은 요리사 3명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710 An Other Man'. 2009년 7월 10일에 오픈했다 하여 '710 An Other Man'이라 상호를 지었다.

부암동 카페 에스프레소 삼거리에서 동양방앗간 골목으로 들어가 환기미술관 방향으로 직진하다 오른쪽 골목 안으로 식당이 얼핏 보인다. 필자는 환기미술관 근방에 주차를 하고 식당까지 걸어 올라갔다.

3명의 요리사가 만드는 이색적이고 뛰어난 요리들

'710 An Other Man'은 주변 레스토랑에 비해 가격대비 점심메뉴가 훌륭하다는 평이다. 점심메뉴는 햄버그 스테이크를 곁들인 라이스, 오리엔탈 치킨 요리를 곁들인 라이스, 비빔밥 등이 준비돼 있다.

간단하면서도 독특한 맛으로 젊은 여성은 비롯 젊은 엄마들의 전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오전에 아이들과 부암동에 들러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가는 단골 엄마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음식들이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에도 흡족한 모양이다.

주방이 오픈되어 있어 3명의 요리사들이 분주히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실내는 빈티지하고 알록달록 작은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연신 셔터를 눌러대는 디카족도 많다.

호텔 요리 부럽지 않은 음식들

필자 일행은 '오리엔탈 치킨 라이스'를 메인으로 '석쇠에 구운 닭가슴살과 오렌지 드레싱으로 맛을 낸 샐러드', '버섯 크림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주문 후 식전음식으로 따끈한 핸드메이드 빵을 내준다. 검



1. 식전에 구운 닭가슴살과 오렌지 드레싱으로 맛을 낸 치킨샐러드 2. 생크림이 듬뿍 들어간 버섯크림 스파게티 3. 달콤한 맛을 내는 오리엔탈 치킨 라이스

은색의 따끈하고 폭신한 빵은 아침을 건너뛴 입맛을 살려준다.

‘식전에 구운 닭가슴살과 오렌지 드레싱으로 맛을 낸 샐러드’가 먼저 나왔다. 아삭거릴 정도로 신선한 야채와 구운 닭가슴살은 달콤새콤한 오렌지 드레싱과 어우러져 싱싱한 맛으로 살아난다. 어떤 음식에도 식전에 먹으면 입맛이 살아나는 훌륭한 샐러드이다.

두 번째로 ‘버섯크림 스파게티’는 생크림이 듬뿍 들어가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새송이 버섯과 베이컨이 듬뿍 들어가 있어 크림소스와 잘 어울린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맛 ‘오리엔탈 치킨’

마지막으로 ‘오리엔탈 치킨 라이스’가 나왔다. 거뭇거뭇한 치킨 몇 조각과 감자튀김, 흑미 밥에 수북히 채썬 겨자잎과 깻잎이 얹혀있다.

그냥 닭튀김에 데리야끼 소스와 비슷한 갈색소스가 뿌려져 있다. 그래서 오리엔탈인가? 하고 생각을 했다.

포크로 찌어 한 입 베어무는데, 눈이 휘둥그레진다.

“희한하대”, “닭튀김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나?”

고소하기만 한 닭튀김이 아닌 달콤한 닭튀김이다.

닭고기 다리살만 골라내 갈비양념에 재워 튀기기 전에 한 번 삶아 내어 담백한 닭고기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 ‘그냥 고소한 닭튀김을 그럴싸한 분위기에서 파는구나’라는 생각은 맛을 보는 순간 사라지고 고소하고 알팍한 튀김옷을 입은 달콤한 치킨은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맛이다. ‘이 맛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맛. 부암동 ‘710 An Other Man’에서 맛보시길 권한다.

식사를 한 뒤 서울답지 않은 부암동 곳곳을 걸어도 좋고, 부른 배가 부담스럽다면 창의문을 시작으로 서울성곽을 걸어도 좋다. 일본 관광객들의 주 방문코스인 ‘커피프린스 1호점’ 찻열지 카페 ‘산모퉁이’까지 한 시간 남짓 천천히 산책을 해도 좋다. ☺

■ 주소 : 서울 종로구 부암동 239-9

■ 문의 : (02)395-5092